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나가 어찌케 살면 좋겠어요?’

광주천변에 자리한 옛 적십자병원(현 서남대 병원)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현장이다. 1980년 당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냈던 병원은 5·18 사적지 11호로 지정돼 있다. 문을 닫은 후 방치돼 있던 적십자병원은 지난 2016년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서울 택시 기사 송강호와 광주 택시 기사 유해진이 처음 만난 곳으로 등장했다. 영화 속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택시 운전사들이 부상자를 태우고 드나들던 병원으로 묘사됐었다.

5·18의 중요 현장이지만 민간에게 매각될 예정이었던 적십자병원은 다행히 최근 광주시가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일단 보존의 길이 열렸다.

마침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적십자병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획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창작그룹 MOIZ는 27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서남병원 일대에서 옛 적십자병원 정체성 아카이브 프로젝트 ‘나가 어찌케 살면 좋겠어요?’를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적십자병원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광주시민들에게 ‘내가 바라는 건물의 미래 모습’과 ‘건물에 붙이고 싶은 이름’ 등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사진으로 합성했다. 합성된 사진과 인터뷰 내용은 병원 앞 도로에 전시된다.

스물 셋의 젊은이는 ‘기억정원’을 꿈꾼다고 했다. 적십자병원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거대한 화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1층에는 플라워 카페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곳을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5·18의 ‘주변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50대의 시민은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



5·18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의 미래를 꿈꾸는 프로젝트에서 전시될 ‘청년예술센터’(왼쪽)와 ‘기억 정원’.

창작그룹 MOIZ, 27일~1월1일 적십자병원 일대서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민들에 미래 모습·이름 설문…합성사진·인터뷰 내용 병원 앞에 전시

간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지역이 유흥가와 가까워 개인에게 넘어가면 술집·음식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 젊은이들을 위한 예술공간,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변하면 의미있겠다고 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공간을 80년 모습대로 재현하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레아 생명력 있는 건물로 남을 것 같아서다. 적십자 병원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공간이었고, 5·18때는 부상자들을 둔 안 받고도 일단 살리는 게 우선이었다고 하니 그런 정체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민들의 이야기는 웹플랫폼(Instagram.com/name_of_here)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1967년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병원의 모습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만들어진 미래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웹플랫폼 업로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창작그룹 MOIZ는 ‘우리의 틀을 직접 만든다’를 모토로 시각예술, 음악, 글, 연출,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 청년 창작자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도민주·양재은·문다은·전하선 4명이 참여했다. 5·18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온 회원들은 사무실 가는 길에 늘 거쳐야 했던 병원 건물을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됐다.

많은 시민들이 이 폐건물이 5·18 사적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흉물스러운 건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 MOIZ는 이 문제를 광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1967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 설립된 광주 적십자병원은 1980년 당시 도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경영난을 이유로 1996년 폐원했다 이듬해 서남병원 부속병원으로 인수돼 2014년까지 적십자 병원으로 이용되다 다시 문을 닫아야했다.

멤버 도민주씨는 “이번 작은 전시를 통해 사적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5·18을 기억할 것인지, 또 어떠한 것들,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승할 것인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꿈을 이루는’

‘소소한 꽃 이야기’

서양화가 윤해옥 초대전

1월1일까지 전대병원 갤러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서양화가 윤해옥 초대전을 내년 1월 1일까지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소소한 꽃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국 등 다양한 꽃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하는 꽃은 윤 작가의 주 작업 테마다.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이 화폭을 장식해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순수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색깔의 수국과 푸른 잎, 꽃을 찾아온 나비가 어우러진 작품 ‘꿈을 이루는’은 풍성한 조형미로 풍요로움을 전한다.

윤 작가는 “나에게 꽃은 행복이다. 어린시절 시골 할머니 댁 정원 가득히 핀 꽃을 보면서 꽃의 매력에 빠졌다”며 “꽃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꽃을 그리면서 꿈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한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윤 작가는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미술세계대전 특선 등 20여회 수상했으며 현재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유명작가 전시회와 정기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이든·모차르트·비발디 음악을 한 무대에서

네오 필하모니아 ‘협주곡의 밤’ 27일 금호아트홀

하이든, 모차르트, 비발디의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네오 필하모니아(음악감독 유건우)가 ‘협주곡의 밤’ 공연을 2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광주 바이올린 아카데미와 네오 바이올린 아카데미가 후원한다.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C장조’,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장조’,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216’, 비발디의 ‘사계’ 등이다.

출연진은 서동완(윤리초 1학년)·김석영(나주중 2학년)·안희진(목포정명여중 2학년)·최정운(목포정호중 2학년)·강인전(전남예고 1학년)과 변흥·곽미소·안지애·박푸름, 피아노 이유정 등이다.



유건우 지휘자

네오 필하모니아는 지난 2014년 창단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지휘를 맡은 유건우씨는 전남대와 독일 쾰른, 뒤스부르크 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지난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 콩고디아 음대 대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며 지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꾸준히 지휘 공부를 해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을 역임했고 광주시향, 불가리아 바르나심포니, 서울 심포니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전남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중이다. 일반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장품에 ‘기록된 감정’

보성 우종미술관 3월 29일까지 국내외 작가 기획전

보성 우종미술관(보성군 조성면 조성 3길 338) 소장품 기획전이 내년 3월 29일까지 열린다.

‘기록된 감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는 정일 작가의 ‘꿈 시리즈’와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김덕기 작가의 ‘가족’, 광훈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바 알머스의 ‘An Adventure’를 비롯해 말콤 몰리의 ‘Our Tramp Stramer Hugging the Horizon off Coconut Island’, 톰 웨슬만의 ‘Still Life with Lichtenstein and Two Oranges’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전시 주제 ‘기록된 감정’은 연말연시를 맞아 쉽게 지나쳐 버리고, 흘러버기 쉬운 다양한 감정들을 포착해 낸 작품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쳐져는 안될 감정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정했



에바 알머스 작 ‘An Adventure’

다. 우종미술관은 보성 CC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2015~2019 대한민국수소소재대상 수퍼리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유산 혁신상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